

#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섹터별 수혜와 리스크

인터넷/게임/미디어 김소혜  
sohye.kim@hanwha.com

건설/유틸리티 송유림  
yurim.song@hanwha.com

자동차/부품 김성래  
sr.kim@hanwha.com

유통/의류/지주 이진협  
jinhyeob.lee@hanwha.com

반도체 박준영  
jyp94@hanwha.com

##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AI혁명이 전세계적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AI혁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삼성그룹과 SK그룹은 각각 2,655조원, 2,100조원 등 총 4,755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는 3S + 1F 전략(속도전, 거점전, 선도전 + 총력지원)을 통해 대체불가능한 K-반도체 강국으로 대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속도전(Speed)은 수요 급증과 글로벌 팹 증설 경쟁에 대응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생산 거점을 조기 완성하여 5년 내 메모리(D램) 생산 능력을 2배 확대한다. 삼성전자의 평택클러스터,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완공을 당초 계획 대비 각각 7년, 12년 앞당길 계획이다.

거점전(Stronghold)은 수도권 팹 조기 완공 외에도 서남권을 반도체 제2의 생산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삼성전자 2기, SK하이닉스 2기 등 총 메모리 팹 4기 구축에 800조원을 투자한다. 서남권 외에도 동남/대경권을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충청권에 81조원을 투자해 HBM 패키징 팹 건설을 추진한다.

선도전(Spearhead)은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 선도적 R&D 투자를 진행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며, 총력지원(Full Support)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소부장/인력양성/파운드리 등 분야에서 총력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으로 29년까지 8.4GW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며, 35년까지 10GW를 확장하여, 총 18.4GW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30년 기준 아태지역 AI 데이터센터의 25% 수준의 M/S를 확보해 아태지역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SK그룹은 정부가 추진 중인 18.4GW 중 80% 수준인 1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1,0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림1]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전국화



자료: 언론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반도체 생산 거점 전국화



자료: 산업통상부, ETC,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선제적 인프라 투자와 안정적 전력공급체계 구축 및 전기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반도체 산단에 전기 15GW, 용수 150만톤,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전기 6.3GW, 용수 65만톤을 공급할 예정이며,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및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 생산을 위해서 원전, 가스, 태양광, 풍력, SMR 등 가용가능한 발전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 대형발전소 중심의 일방향 전력망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양방향 체계로 개편을 추한다.

[표1] 3대 메가 프로젝트 총 투자 규모

기업명	투자 규모	세부 내용
삼성	2,655조원	수도권(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30조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425조원 충청권 HBM 패키징 등 AI 산업 구동 140조원 영남권 휴머노이드 로봇 라인 등 제조업 AX 60조원
SK	2,100조원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1,000조원 수도권(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600조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400조원 충청권 HBM 패키징 등 100조원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3대 메가프로젝트 주요 내용

구분	항목	주요 내용
추진 내용	반도체	서남권(메모리팹) 등 반도체 생산거점의 전국 확산(3S+1F 전략*):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판세를 주도하기 위한 속도전(Speed), 거점전(Stronghold), 선도전(Spearhead)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지원체계 서남권: 총 800조원 투자해 메모리 팹 4기 구축(삼성 2기, SKH 2기) 동남-대경권: 부산-구미 등 기존 반도체 산업기반 활용, '소부장 혁신 거점' 육성 충청권: 81조원 투자하여 대규모 HBM 패키징 팹 건설 추진(삼성, SKH) '5년내 메모리(D램) 생산능력 2배 확충' 등 압도적 투자 속도전 추진
	피지컬AI	탄탄한 국내 생산기반 활용, AI로봇 압축성장: 로봇 잘만드는 국가로 대전환 AI로봇 압축성장 3M 전략: ① M.AX 가속화, ② Master 육성, ③ Mass Production 새만금-대경권: K-로봇 양대축으로 지역 중심 로봇 생산기반 확충 휴머노이드 산업현장 확산, 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AI 데이터센터	민·관 협력으로 GW급 대규모 AIDC 구축(총 18.4GW) 1단계: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 울산 등(SK): 5GW, 동해(GS): 2.4GW, 세종+α(네이버): 1GW 담당 - 이를 위해 약 550조원 투자할 예정 - SK에서 권역(중부권, 대경권, 호남권, 강원)별 추가 입지 검토 중 - 입지인허가 등 조속한 마무리로 '28년 상반기 내 착공 → '29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2단계: SK가 구축하는 5GW 규모 시설 '35년까지 15GW로 확장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생태계 및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정부 지원	전력	수도권: - 용인 기존 선로 용량 증설, 신설 선로 지중화 - 강원도 동해안·충남 서해안 발전원 활용 서남권: - 전기 6.3GW 공급 - 전력망 접속 선로 신속 구축 - 풍부한 재생에너지 및 원전 활용
	용수	수도권: - 통합용수공급사업 조기 완료, 용수 150만 이상 공급 - 소양강·화천·충주댐 등 한강 수자원 활용 - 다목적댐 및 대체 수자원 활용 서남권: - 도수관로 신속 건설, 용수 65만 이상 공급
	교통 인프라	산업단지에서 정주지는 30분, 공항·항만까지는 1시간 첨단 산업에 맞는 첨단 물류 기반 구축
	인력	GIST Arm스쿨 6월 개교 남부권 연합공대 인력 양성 사업 신설
	입지 및 정주여건	산단 조성 인허가 패스트트랙 기업 수요 반영한 산업단지 선제 공급 토지 이용 등 규제 완화, 맞춤형 특례 지원 대규모 수요 발생 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자료: 언론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반도체: 단기적 공급증가는 불가, 중장기적 수요 선제 대응

### 호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은 광주·전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 구상이다. 현재 공개된 내용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 언급됐으며, 전체 투자 규모는 약 800조원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약 4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담당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신규 생산시설은 메모리 반도체 팹 총 4기 수준으로 언급됐으며, 광주, 전남권을 중심으로 입지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권역 단위의 투자 방향성과 대략적인 투자 규모에 한정되어 있으며 개별 팹의 세부 위치나 라인별 투자 집행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 핵심 인프라 확보가 관건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력과 용수 확보가 주요 지원 과제로 제시되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서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에는 GW급 전력 수요와 하루 수십만 톤 규모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언급되었다. 용수 확보 방안으로는 기존 댐 활용, 공급능력 증설, 하수 재이용 등이 거론됐으며, 전력 측면에서는 호남권의 재생에너지 기반과 송전망 확충을 연계하는 방안이 함께 언급되었다.

정부는 전력, 용수, 부지 인허가 등 생산시설 조성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반도체 팹 투자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전력, 용수, 폐수처리, 가스, 케미컬, 물류, 인력 등 대규모 산업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인프라 조성 여부가 향후 투자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비공개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투자 규모, 참여 기업, 팹 수, 권역 단위의 입지 방향, 인프라 지원 방침에 한정된다. 개별 팹의 정확한 부지, 착공/준공/양산 일정, 적용 공정, DRAM/HBM/NAND 등 제품별 생산 배분, 월 웨이퍼 투입 규모, 장비 발주 시점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일정 측면에서도 현재 확인 가능한 내용은 정부 임기 내 착공 추진 정도이며, 실제 준공이나 양산 개시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은 “서남권에 총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구상과 메모리 팹 4기 조성 계획이 제시되었으며, 정부가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라는 정도의 내용이다.

### 단기 메모리 공급 확대 영향은 제한적

이번 프로젝트를 단기 공급 증가 요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신규 반도체 팹은 부지 확정, 인허가,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클린룸 시공, 장비 반입, 공정 셋업, 고객 인증, 수율 안정화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호남권 투자는 기존 생산거점 내 라인 증설이 아니라 신규 권역에 대형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양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면 호남권 팹이 실제 공급에 유의미하게 기여하기까지는 최소 수년, 길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장기 생산능력 확대는 구조적  
수요 대응

또한 증장기 공급 증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제한적이다. 메모리 산업의 핵심 수요는 과거 PC·모바일 중심에서 서버, AI 가속기, HBM, 고성능 DRAM, 고용량 SSD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AI 서버 확산은 기존 서버 대비 더 많은 DRAM과 HBM, 고성능 스토리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급이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산업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중요한 것은 공급 증가 속도보다 수요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 AI 인프라 투자가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 고성능 컴퓨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 생산능력 확대는 단순 공급 부담보다는 구조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내 반도체 소부장 투자  
사이클 장기화 기대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호남권 투자 구상이 증장기 수주 가시성을 높이는 이벤트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P4, SK하이닉스 M15x 증설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삼성전자 P5, SK하이닉스 용인 Y1 등 신규 투자 이벤트가 이어질 예정이다. 여기에 호남권 신규 클러스터 조성 계획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 반도체 투자 사이클은 단발성 증설이 아니라 다년간 이어지는 구조로 확장될 수 있다.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업체들은 팹 착공 이전의 인프라 투자 단계부터 클린룸, 가스케미컬 공급장치, 전공정/패키징/테스트 장비, 부품 교체 수요까지 여러 단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단기 실적 기여보다는 증장기 수주잔고와 투자 지속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선단 공정 전환으로 소부장  
수혜 범위 확대

특히 메모리 투자는 기술 전환과 생산능력 확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소부장 수요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선단 DRAM, HBM, HBF 중심의 투자가 진행될 경우 전공정 전반의 장비 수요뿐만 아니라 TSV, 본딩, 테스트, 열관리 공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후공정 장비와 부품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신규 팹은 초기 장비 투자 이후에도 공정 안정화, 수율 개선, 유지보수, 소모품 교체 수요가 장기간 발생하기 때문에 소부장 업체들에게는 일회성 매출보다 반복적 매출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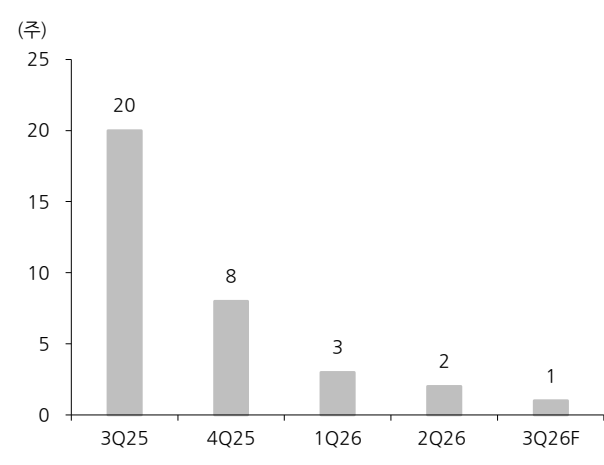
리스크는 투자 계획의 실행  
시점 지연 가능성

리스크 요인은 계획의 실행 시점이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대규모 투자 방향성에 가깝고, 팹별 부지, 착공, 장비 반입, 양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규모 자체보다 세부 로드맵이 언제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신규 클러스터는 기존 캠퍼스 증설보다 행정 절차와 인프라 조율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 Capex 집행 시점이 기대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리스크로 남아 있다.

공급 부담보다 수요 대응과  
수주 기반 확대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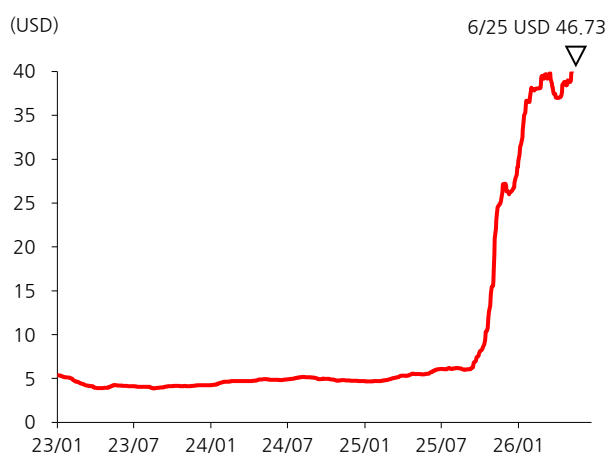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은 단기 메모리 공급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고, 증장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투자 저변을 확대하는 이벤트로 판단된다. 실제 양산까지는 5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단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삼성전자 P4와 SK하이닉스 M15x, 이후 P5와 Y1 투자에 더해 호남권 신규 클러스터까지 연결될 경우 국내 반도체 Capex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장비, 소재, 부품, 인프라 업체들에게 증장기 수주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번 이슈는 메모리 공급 과잉 우려보다는 폭증하는 메모리 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및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투자 사이클 연장과 수주 기반 확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3] 메모리 메이커 평균 재고수주 추정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DDR5 16G (2G\*8) 4800/5600 Mbps 가격 추이



자료: DrameXchange,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삼성전자 P5 공사 현장



자료: 언론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자료: 언론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인터넷/SW: 토큰 팩토리 시대, 인터넷의 뒀

AIDC 확대가 인터넷/SW 산업의 핵심 수요 창출 축으로 작용 전망

이번 프로젝트는 반도체 팹 증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인터넷/SW 산업 측면에서는 수백조 원 규모의 AIDC 확대가 핵심 수요 창출 축으로 작용한다. SK·GS·네이버가 1단계 8.4GW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삼성SDS가 해남에 별도 국가 AIDC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클라우드·인프라 사업자들은 정부의 전력·용수 인허가 지원을 등에 업고 캐팩스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춘 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

네이버의 엔터프라이즈 B2B 사업 가치 확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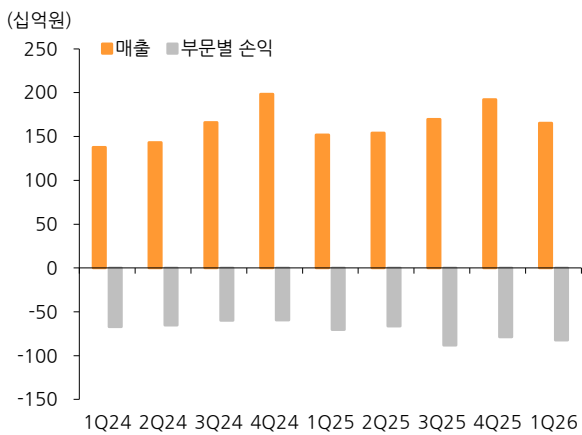
네이버가 국가 AI데이터센터 컨소시엄에 정식 파트너로 편입됐다는 상징성은 크다. 기존에도 세종에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클라우드·B2B 사업을 키워왔는데, 이번 발표로 세종 확장분과 추가 지역 신규 부지가 국가 전략사업으로 편입되면서 전력·용수 인허가 등 인프라 조달 리스크를 정부가 상당 부분 흡수해줄 개연성이 생겼다고 본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은 데이터센터 운영의 최대 병목인 전력 확보 비용과 시간을 낮춰 줄 수 있어, 네이버 클라우드·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중장기 원가 구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금 투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상쇄할 수 있는 수익화 시점이 중요

다만 실제 실적 반영 시점은 착공·가동 일정에 연동해 후행적으로 봐야 한다. 게다가 자금 투자 부담 우려도 존재한다. 1GW 규모 데이터센터 신설은 조 단위 캐팩스를 수반하는데, 네이버 단독 재무 여력으로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 자체 투자인지 SK와 같은 컨소시엄형 리스크 분담인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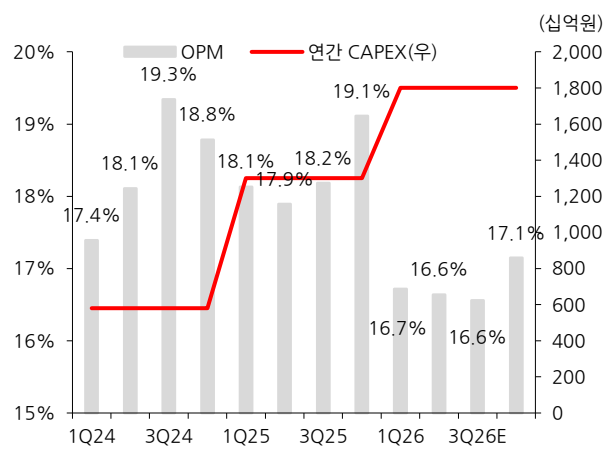
네이버의 GPU 투자 규모는 2025년 약 7,000억원에서 2026년 1.4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발표로 투자 금액의 상향은 불가피하다. CAPEX 투자가 약 2조 원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AI 서비스가 창출하는 영업이익이 늘어난 자본 비용과 운영 비용을 상회하지 못한다면 ROIC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동사는 GPU가 입고되는 시점부터 5년 정액 상각으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있는데, 연간 약 2천억원 중반이 고정비 부담으로 자리잡게된다. 이는 AI 수익화 규모가 이 비용 증가 속도를 상회하기 전까지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률에 하방 압력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7] 네이버 엔터프라이즈 법인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NAVER,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확대되는 CAPEX, 마진 훼손 불가피



자료: NAVER,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삼성SDS, 해남 및 구미에 초대형 AI데이터센터 구축 예정

삼성 그룹 투자계획 발표에 따르면 삼성SDS는 전라남도 해남 솔라시도에 약 17조원을 투자해 국가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는 삼성전자가 구미에 피지컬 AI·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구도로, 삼성 그룹 전체 호남 투자(약 425조원, 반도체 메인 팹 약 400조원 포함) 패키지의 일부로 편성됐다. 삼성 SDS가 명시적으로 AI데이터센터 사업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에 클라우드·SI 중심이던 사업 포트폴리오에 국가급 인프라 프로젝트가 더해진 셈이다.

그룹사향 매출에 의존해온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관점에서 중요

삼성SDS가 삼성 그룹 내 AI 인프라 구축의 실행 주체로 공식 지정됐다는 점에서, 그룹 계열사향 매출에 의존해온 클라우드 사업 구조가 국가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수주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17조원이라는 투자 규모는 SK(1GW당 대략 백조원대)나 네이버 대비 상대적으로 작아, 이것이 순수 신규 매출 기여로 이어지는 규모인지 그룹 내부 IT 인프라 고도화 성격이 강한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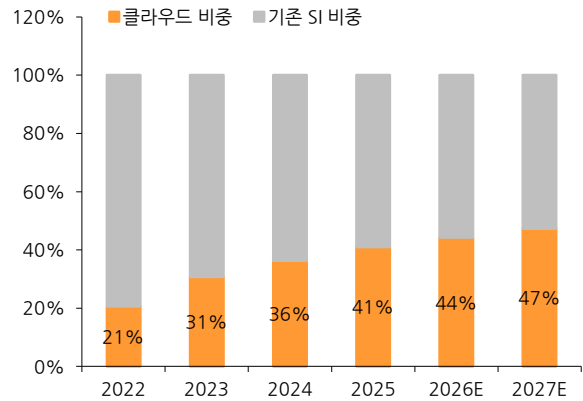
리스크는 삼성SDS 특유의 사업 구조에서 비롯된다. 삼성SDS 매출의 상당 부분이 삼성 그룹 계열사 대상 캡티브 매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가 AI데이터센터 투자가 외부 고객 대상 클라우드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룹 내부용 인프라 확충에 그칠지가 투자 포인트를 가른다. 또한 해남은 완전히 새로운 입지로 부지조성·전력망 구축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가동 시점까지의 리드타임이 길고, 그 사이 GPU·AI반도체 세대교체가 이뤄질 경우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리스크도 존재한다.

[그림9] 삼성 SDS가 발표한 향후 5년간 투자로드맵



자료: 삼성에스디에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삼성 SDS 클라우드 비중 확대: 기존 SI성 매출 비중 감소



주: IT매출액 내 비중

자료: 삼성에스디에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건설: 이거 다 누가 짓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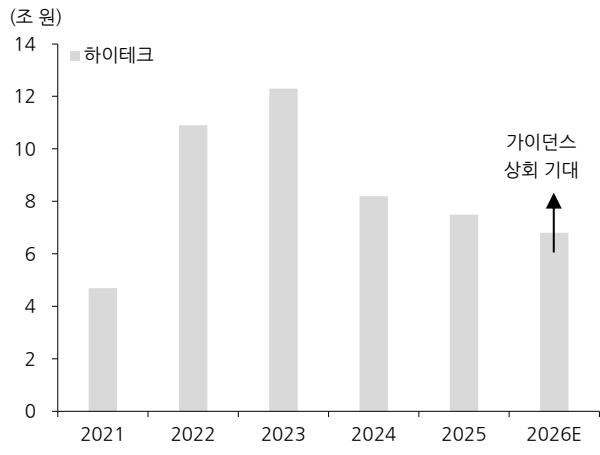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지을 것이 많아졌다

지난 29일 정부는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담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신규투자 기준 총 1,500조 원 규모이며, 이와 관련 삼성전자와 SK그룹은 기존 투자계획 포함 약 4,755조 원에 달하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다. 당사는 이번 투자계획 발표로 인해 지을거리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건설 업종의 수혜를 예상하며, 총 네 가지 키워드로 수혜 분야 및 관련주를 점검해봤다.

### 1) 반도체 관련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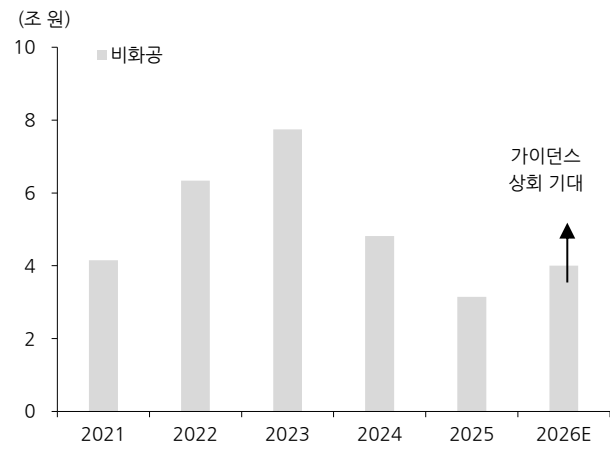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약 2,100조 원의, SK하이닉스는 약 1,100조 원의 중장기 반도체 관련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중장기 투자 기조가 보다 명확해짐과 동시에 팹택 P5, P6의 경우 순차 건설에서 동시 건설로 기존대비 건설 계획이 3~4년 단축되고, 용인 클러스터 계획이 12년 앞당겨지는 등 기존 반도체 단지 건설에 속도가 붙는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에 대한 수혜는 건설 계열사인 삼성물산, 삼성E&A, SK에코플랜트가 주요하겠으나 HL D&I,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등 중견 건설사와 한미글로벌 등 PM사 참여도 예상된다.

[그림11] 삼성물산 하이테크 수주 및 가이드نس



자료: 삼성물산,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삼성 E&A 비화공 수주 및 가이드نس



자료: 삼성E&A,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2) AI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울산(1GW, SK), 동해(2.4GW, GS), 세종+α(1GW, 네이버), 권역별 추가 입지(4GW, SK)를 통해 1단계 8.4GW를 구축(‘28년 상반기 착공)하고, 이후 2035년까지 10GW를 추가(SK)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 MW당 80~100억 원 수준의 시공비를 가정하면 총 18.4GW에 대한 예상 수주 규모는 약 150~180조 원이다. 총 규모도 국내 주택수주 2년치에 달할 정도로 크지만 시공 기간도 2~3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인 만큼 실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가 기대되는 건설사는 SK에코플랜트, GS건설, 현대건설, DL이앤씨 등이다. GS건설의 경우 총 21건의 DC 수주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0건은 자이C&A(자이에스앤디 연결자회사)가 공사를 수행했으며, 자회사 ‘디씨브릿지’를 통해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까지 축적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총 18건의 수주(네이버 DC 각 세종 포함) 이력을, DL이앤씨는 총 10건(DL건설 포함)의 수주 이력을 가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각 사별로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6건의 국내 DC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3) 전력공급(신재생/원전)

메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선제적인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 특히 전력 공급과 관련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에 이행하는 동시에 27년 준공예정인 원전 2기와 계속운전 추진 중인 원전 9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설 업종 내에서는 현대건설(태양광/풍력사업 영위,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보유, SMR개발), 대우건설(해상풍력 사업 참여), 코오롱글로벌(육상/해상 풍력사업 영위), 금호건설(에너지고속도로 전력망 구축사업 추진)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4) 기업형 첨단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기업형첨단도시 조성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산업단지+도심융합특구+신도시”가 고속 교통인프라로 연결되는 희망도시 조성이라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싱가포르 원노스, 중국의 선전과 같은 모델을 언급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전망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취지대로 기업의 지방투자가 지역 성장으로 연결된다면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견 및 지방 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업종 전반에 걸친 수혜 및 투자 심리가 회복이 기대된다.

리스크 요인

건설업 측면에서 이번 투자 계획 발표가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장기에 걸친 계획인 만큼 발주 시기와 규모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입지 확보나 인프라 조성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수주 기대감을 과도하게 선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표3] 주요 건설사의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 현황

건설사	기 수주 프로젝트 현황	보유 파이프라인	비고
GS건설	총 수주 21건 - GS건설 11건, 자이C&A 10건	국내 4건 보유	지분투자 병행 공사 중 4건(자이C&A 3건)
현대건설	총 수주 18건	국내 6건, 해외 2건 보유	지분투자 병행 글로벌 CSP 실적 6건 포함 공사 중 6건
DL이앤씨	총 수주 10건 - DL이앤씨 5건, DL건설 5건	국내 2건 보유	공사 중 5건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피지컬 AI/로봇: 국내 제조업 로봇 사업확장의 기회

대한민국 정부, AI/로봇  
강국으로 도약 비전 제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3대 분야 중 하나인 '피지컬AI'에는 이를 핵심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AI로봇' 분야, 즉 '휴머노이드' 로봇 강국으로의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과 로봇산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제조업 AI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발족한 'M.AX 얼라이언스'가 이번 '피지컬 AI' 강국으로의 도약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국내 로봇, AI 및 이를 적극 활용할 수요제조업 내 1,500여개 기업들이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며, 업종별 특화 AI로봇 개발 및 현장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지컬AI 주도권 확보에 있어  
국내 주력 제조업 역량  
최대 활용

이번 발표 내용의 핵심 문구는 '주력 제조업과 로봇산업의 시너지 극대화'라고 판단한다. 정부가 시너지의 극대화 대상으로 제조업과 로봇산업을 강조한 이유는 피지컬AI가 적용될 환경, 즉 피지컬AI의 대규모 수요시장이 제조업과 로봇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숨겨진 함의는 '피지컬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조 역량에 강점이 있는 한편, 전통적인 제조업 밸류체인의 경쟁력을 향후 신성장 동력인 '피지컬AI'로 전환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지컬AI 육성은 제조업 역량을 최대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로봇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는 기회이다. 피지컬AI 주도권 확보에 있어 제조업 역할의 중요성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데이터 팩토리', 두번째는 '양산 경쟁력'이다.

[그림13] 휴머노이드 MAX 얼라이언스 협력체계



자료: 산업통상부, KEI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피지컬AI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는 제조업에서 창출  
- 제조 현장은 피지컬 AI데이터  
팩토리로 역할 확대

정부는 피지컬AI 고도화를 위한 총력적 데이터 관리체제 구축과 향후 3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피지컬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피지컬AI 고도화 과정은 '데이터 수집 - AI학습 - 모델 생성 - 검증 - 적용'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AI 프로세스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피지컬AI 데이터의 속성은 기존 AI 데이터의 그것과 다르다. 피지컬AI가 존재하는 환경은 기존 Web 기반이 아닌 실제 제조현장이다. 현장에서 생성되는 작업자의 행동이나 자동화 설비의 동작 특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피지컬AI 시대로 전환 시 제조 공장은 제품을 양산하는 역할에서 피지컬 AI의 자양분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우리의 제조 역량을 데이터화  
→ 독자 피지컬AI 인프라  
구축의 명분

중요한 점은 피지컬 AI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있어 엔비디아 등 글로벌 선도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자체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한 부분이다. 피지컬AI 시대로 전환 시 제조공장은 제품을 양산하는 수집하는 작업자의 행동과 설비 동작 데이터에는 각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스킬과 암묵지 등 핵심 노하우 데이터를 포함한다. 힘, 토크, 관성 등의 동작/행동데이터는 디지털트윈 환경에서 각종 조건에 맞게 가상으로 방대한 양의 합성데이터로 증폭되고, 월드모델을 통해 학습을 수행하여 최적의 동작을 생성한다. 정부가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이유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쌓아온 제조 경쟁력을 AI를 통해 고도화하여 활용하되, 축적된 노하우를 노출하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고도화된 피지컬AI의 가치는 결국 '하드웨어(HW)'적으로 구현  
- HW 양산성 확보에 주력  
신규 Bottleneck으로 부각 전망

피지컬AI 주도권 확보에 있어 강조되는 제조업의 또다른 핵심적 역할은 '양산 역량의 확대'이다. 아무리 양질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AI모델을 고도화하더라도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구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수천~1만여 개의 부품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시장에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시장 요구 가격에 맞춰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산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미 글로벌 주요 휴머노이드 업체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로봇 대량양산 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 양산을 위해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S/X 생산을 단종하고 로봇양산 라인으로 전환 중이며, Figure AI는 지난 3월 연 12,000대 규모의 자체 생산라인 'BotQ'를 구축하였다. 얼마전 중국 과창판 상장심사를 통과한 유니트리외의 경우도 이미 2024년 양산라인을 구축/운영한 이후 지난해에는 연 5,500대 이상을 출하했으며, 엔진AI도 지난 5월 연 10,000대 규모의 휴머노이드 생산체제를 구축했다고 언론에 발표하는 등 이미 휴머노이드의 대량 양산 경쟁은 가시화되고 있다.

[표4] 주요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로봇 대량 양산체제 구축 동향 - 유니트리, Figure AI, 엔진 AI는 이미 양산체제 가동

업체명	본격 양산 시기	생산 규모 및 목표	비고
보스톤다이내믹스	2028년 하반기	• 연간 30,000대 생산 목표 - 미국 내 전용 공장 구축	• 2028년 초기 양산 물량은 HMGMA에 배치 - 서열화(Sequencing)작업 자동화 - 2030년부터는 Overhead Task로 적용 확대 • 2029년 기아/현대차 미국 생산법인 적용 예정 • 2030년 이후 계열사 및 Non-captive로 판매 확대
테슬라	2026년 하반기 (gen3 본격 생산 개시)	• 궁극적으로 연간 100만 대 목표 - 2025년 연 내 5,000대 생산 목표 제시했으나 일정 조정 ※ 7월~8월 사이 초기 양산/배치 계획 발표(다소 지연)	• 프리몬트 라인 1(연 100만 대 규모 CAPA)을 공정 표준화 거점으로 활용 - 올해 초 모델 S/X 생산 라인을 로봇 전용라인으로 전환 • 초기 자사 기가팩토리(프리몬트, 텍사스 등) 제조 라인에 우선 배치 계획
Figure AI	2026년 3월 (BotQ 본격 가동)	• 연간 12,000대 생산체제 구축 - 2026년 4월 기준 1일 1대에서 시간당 1대 생산으로 Ramp-up	• BMW 스파르탄버그 공장 조립 라인 및 UPS 물류 현장 투입 • 2026년 2분기 기준 '사람보다 로봇이 많은 공장' 조직 구조 달성 - 사내 운용 중인 로봇 대수 740대, 임직원 수 660명
유니트리 (宇樹科技)	2024년	• 2025년 연간 5,500대+ 출하 실적 발표 - 연 생산량은 6,500대 이상 기록 ※ 주요업체 중 가장 먼저 양산 돌입	• 16,000달러(G1, 2,300만원) 가격대로 연구/교육용 시장 수요 확대 • 현재 출하량 기준 글로벌 최상위권 독주 • 글로벌 시장 선점 위해 IPO(기업공개) 절차 돌입
엔진 AI (Engine AI / 众擎)	2026년 5월 (공장 가동 및 초도 출하)	• 공정 효율화로 15분당 1대 생산 - 연간 10,000대 규모 구축	• 순찰·검사 및 산업 제조 공정 부품 검수 타깃 • 이미 순찰 분야 등에서 수천 대 단위 주문 확보
UBTECH	2026년 말	• 자사 휴머노이드 '워커 S2'에 대해 연간 10,000대 양산하는 체제 구축 - 지멘스 협력 통해 디지털 제조 역량을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에 적용	• 중국 주요 전기차 제조사의 스마트팩토리에 전략적 배치 추진 - 니오(NIO), 비아디(BYD), 지커(Zeekr) 등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부는 기존 제조업 기반 양산 역량을 피지컬AI/로봇 분야로 확장 유도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만금과 대경권을 양대 축으로 하는 지역 중심 로봇 생산기반 구축 계획을 제시하였다. 새만금은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AI/로봇 클러스터’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로봇 파운드리 및 로봇 핵심부품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대경권은 인접한 자동차/조선/전자산업 연계를 통해 로봇 실증을 위한 테스트 필드를 구축하고 관련 부품업체가 로봇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업종 전환을 지원한다.

자동차 등 국내 제조산업 내 기업들의 로봇 대량양산체제 선제적 구축 가시화 전망

이에,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맞게 국내 제조업체들의 로보틱스 부품 개발 및 제조사업으로의 진출 확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미 국내 자동차 밸류체인 내 부품업체들은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양산을 위한 액추에이터, 배터리 및 비전센서(카메라, 라이다 등) 등 핵심부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와 HIL만도는 액추에이터 양산개발을 본격화하고, LG이노텍은 휴머노이드용 비전센싱 시스템을 개발한다. 현재는 북미 고객사 인근 거점 중심의 사업 전개가 검토 중이지만, 국내 로봇 생산기반 구축 추진에 따라 대경권 및 새만금 권역에서의 R&D 및 제조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새만금 AI/로봇 클러스터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 중심 수혜 확대 전망

피지컬 AI 양산체제 구축에 있어 현재로서 국내 제조업 역량을 로봇산업으로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주체는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부품 밸류체인이라고 판단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복잡한 부품 체계를 양산성 관점에서 최적화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균일한 품질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수만개의 부품이 상호 맞물리면서 가혹 주행환경 특성에서 안전/내구성을 구현하는 자동차 밸류체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다. 현대차그룹 주도의 국내 자동차 밸류체인이 보스톤다이내믹스 Atlas 양산에 참여하는 등 로보틱스 밸류체인으로 확장하는 움직임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피지컬AI 산업 육성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5] 트럼프 2기 리쇼어링 및 제조업 강화 주요 정책

구분	투자 규모 (조원)	주요 내용
AI 데이터센터	5.8	• 엔비디아 GPU 5만장 규모의 연산 능력 구축 -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 학습 목적
로봇 제조 클러스터	0.4	• 연 3만대 규모 로봇 생산 추진 • <b>현대차그룹 외 국내 로봇 전문업체 제품 위탁생산</b> - 중소 협력사들의 로봇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수전해 플랜트	1.0	• 200MW 규모 청정수소 생산체제 구축 • 모빌리티 에너지원 공급 주력
태양광 발전	1.3	• GW급 발전 포트폴리오 확보 • 데이터센터 및 플랜트 RE100 달성
AI 수소 시티	0.4	• 수소 기반 인프라와 Physical AI 적용한 미래형 표준 도시 실증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공표일: 2026년 7월 2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소혜, 송유림, 김성래, 이진협, 박준영)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 산업 투자의견 ]**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

(기준일: 2026년 6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6.3%	3.7%	0.0%	100.0%